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 워크숍 개최

ASME Code(미국기계학회 표준) 위원회에 17개 제·개정안 제출, 심의 중
- 국내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및 국제 표준화에 기여

대한전기협회는 10월 8일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전 아트센터에서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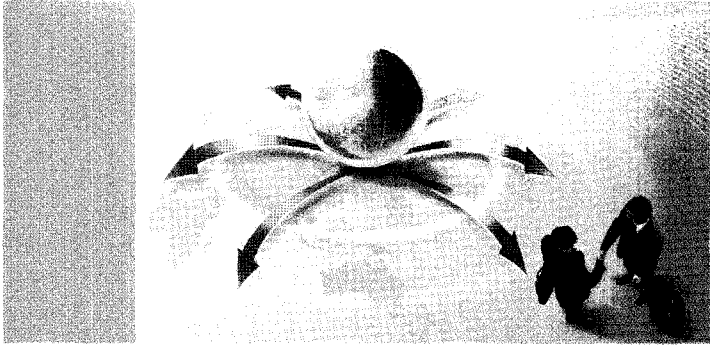
ASME Code 보일러 및 압력용기 분야 대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사업성과 점검 및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ASME의 표준전문가인 Christian Sanna가 "ASME 위원회의 활동과 참여방안"을, 기술표준원의 김준호 연구사가 "우리나라의 주요 표준정책 이슈"에 대한 특강에 이어 4개 기술분야의 ASME Code 대응활동 및 기술제안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전기협회는 기술표준원이 관장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사업 중 국내 전력, 석유화학, 에너지 등 플랜트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ASME Code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분야 대응을 전담하고 있으며, ASME Code 내용 중 국내 산업에 피해나 불편을 주는 사항의 개정, ASME Code에 국내 기술 반영을 위한 표준제정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미국 멤피스에서 개최된 ASME Code 위원회에 압력용기 분야 2건, 비파괴검사 분야 11건, 구조 분야 3건, 재료·용접 분야 1건 등 총 17건을 제안하여 모두 Working Item으로 채택되었고 항목별로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상세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제·개정안이 ASME Code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산업계의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우리 기술이 세계적 권위의 ASME Code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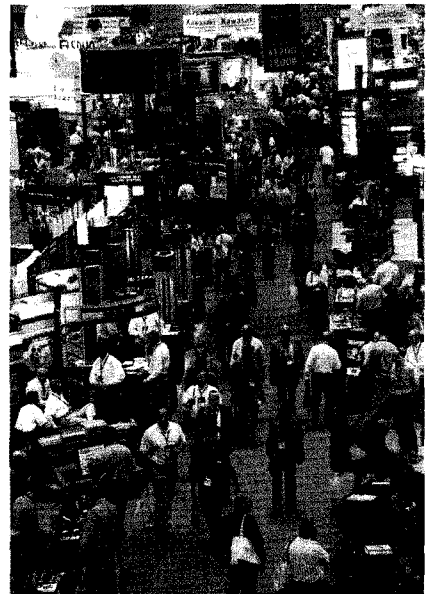
대한전기협회, 'Power-Gen Int'l' 참관단 모집

80개국 18,000여명의 전력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련분야 세계최대 규모의 전시회

대한전기협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PGI(Power-Gen International) 전시회에 참가할 참관단을 모집한다.

올해 21주년을 맞는 PGI는 미국 상무부가 후원하는 세계 최대 전력산업(원자력, 전기 분야 포함) 전시회로, 200편 이상의 기술 논문 발표와 분야별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개최된다. 매년 전 세계 80개국에서 1,200여개의 회사가 전시에 참가하고 18,000여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관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 한국 대표단의 참관을 주관하는 대한전기협회는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의 협조로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서 발전소 견학을 비롯하여, 참가자들에게 통역, 무역상담, 현지 업체와의 미팅 주선, 비즈니스센터 사용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세계 전력시장 직접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신기술 습득과 신제품 개발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최신 기술동향과 세계 유명기업 및 중소 제조업체의 신제품 등 전력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PGI 전시회에 매년 발전사, 제조사, 엔지니어링사, 연구소, 중소기업 등에서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라스베가스 전시회에도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KEPIC처(안영태 팀장 : 02-6328-6107)로 문의. KEA